

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고, 어떤 연구에서는 석면폐증이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흡연자 또는 흡연경험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흡연은 폐암의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습관은 석면폐증 근로자들을 석면폐증이 없는 근로자들 사이의 폐암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연구는 석면폐증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석면폐증 근로자들의 폐암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폐암의 위험과 석면폭로, 흡연과 관련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석면폐증 근로자들의 폐암위험이 높은 것은 단지 그들의 흡연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만 보기에 어려움이다. 어떤 연구는 석면폐증 근로자들이 폐암의 위험이 더 높다고 주장하지만 용량-반응 관계가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폐암의 위험과 석면폐증, 흡연과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하려는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인체의 폐조직에 있어서 카드뮴 농도』

저자 : Kollmeier H, Seemann J, Wittig P, Rothe G, Muller KM

출처 :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1990 ; 62

(5) : 373-377

101예의 부검에서 폐조직에 있는 카드뮴을 flameless원자흡광기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예들은 Muenster(MS)근방 뿐만 아니라 Ruhr 지구에 이웃해 있는 도시(BO/DO)와 Bochum (BO), Dortmund(DO)로 부터 얻어졌다. 이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기관지암으로 사망한 8사람 이었다. 폐조직의 카드뮴 농도(CdL)와 연령과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단지 50세 주변에서 경미한 증가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CdL의 평균값은 28-45세 그룹이 1.32 $\mu\text{g/g}$, 45-65세 그룹이 1.48 $\mu\text{g/g}$ 이고, 65세 그룹보다 0.64 $\mu\text{g/g}$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CdL 농도가 여자의 경우보다 두배 더 높았다. 조사된 두지역 (BO/DO : MS)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기관지암 경우 CdL은 기내수준 이상이었고, 가끔 같은 표본에서 Cr과 Ni 농도가 비슷하였다. 흡입된 금속 aerosol의 총량외에 불충분한 폐의 정화작용이 폐실질(lung parenchyma)에 금속을 축적 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흡입과 질환을 원인결과 관계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것은 직업, 환경, 흡연습관과 관련된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 산업보건 세미나 성료

협회의 중소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한 세미나가 7. 3 서울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관계기관, 보건관리자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보건관리 실무자가 살펴본 중소기업 보건관리 실태 및 문제점 (서울지부 하은희 예방의), 근로자 보건관리대책 (고려대 의대 염용태 교수)에 대한 연구 발표와 사례발표((주)모나미 보건관리자 염동숙)를 들은 후 토론회를 가졌다.





노동부장관 표창 — 동해센타 이석한 국장, 부산지부 천윤원 과장

산업안전보건장조기간을 맞아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산재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에서 당 협회의 동해산업보건센터 이석한 사무국장과 부산산업보건센터의 천윤원 건강관리과장이 선정,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동 강조기간중 행사의 일환으로 협회는 사업장의 산재예방유공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협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포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이승순 동해(주) 노무계장 (서울)
- 문정보 (주)동아상사 전무이사 (부산)
- 최정덕 제일합섬(주) 공장장 (대구경북)
- 인진익 화천기공(주) 보건관리자 (광주전남)
- 이성우 태아산업(주) 사장 (대전충남)
- 조인환 제일제침(주) 총무과장 (대전충남)
- 황순기 (주)릭키 노무부장 (충북)
- 박선희 (주)백양 보건관리자 (전북)
- 최기수 삼양광학공업(주) 보건담당자 (경남)
- 심영록 삼성전관(주) 보건담당자 (동해)

직업병 예방 팸플릿 제작 배포

협회는 다발 직업병인 소음과 연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용 팸플릿 30,000부를 제작, 7월중 전국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조현근 직원,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인기상

7월 산업안전보건장조기간 행사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에 협회 대구경북지구 조현근 직원이 참가하여 인기상을 차지하였다.

협회 병리기사, 기술연수차 일본에 파견

협회는 분석장비 중 생화학자동분석기 (Automated Chemistry Analyzer) 5대를 새로 구입하고, 이의 정도관리를 위해 임상병리기사 7명을 선발하여 7.14-21(8일간) 일본 현지로 파견, 기기 제작사인 Olympus사로부터 기기 사용법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



제2회 산업간호전국대회 성료

한국산업간호학회(회장 김화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산업간호사회(회장 임옥순, 삼광유리(주) 보건관리자)가 공동개최한 제2회 산업간호전국대회가 7.11-1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업간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와 당 협회 후원아래 성료되었다.

이 행사에는 노동부 관계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다수 인사가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대회 첫날에는 산업보건의 역할과 산업간호지원기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둘째날에는 산업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의와 산업간호학회 임시총회 및 산업간호사와 업무보고가 있었다.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의 분야별 전문적 활동이 요구될 뿐 아니라 직업병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은 각 분야의 유기적 역할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이들 각 분야의 상호 참다운 협조체제와 기능적 배합은 물론 총체적 보건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협회, 산업의학회, 산업위생학회, 산업간호학회를 중심으로 산업보건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동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직업병예방종합대책세부시행계획(안)의 종합토의도 갖을 예정이다.

일본 경도공장보건회 乾 소장, 협회 방문

지난 7. 19에 일본 경도공장보건회 乾 修然 소장이 내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7차 한일 산업보건학술집담회 개최 일정을 협의차 당협회를 방문하고 조규상 회장을 비롯한 재경 이사들과 회의를 마친 후 7. 20일 귀국하였다. 이로써 제7차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는 오는 '92. 5. 15-16일에 경주에서 개최하며, 주제는 직업병, 건강진단과 환경측정의 정도관리, 중소기업의 건강관리가 중심이 될 계획이다.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협회는 오는 8. 9-10일 유성관광호텔에서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정부 정책이나 제도, 법령 등이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사업장 중심의 보건관리 정책이 산업의학,

협회 의사직 간담회 개최

오는 8. 10-11일 유성관광호텔에서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와 관련하여 협회 센터의 의사직 간담회를 갖는다. 지부장, 센터소장, 관리의사, 공중보건의 약 50여명이 참석하는 이 간담회는 노동부 산업보건과장으로부터 정부의 산업보건정책을 설명듣고, 검진업무 수행에서의 정도관리와 보건관리대행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보건진단기관 산업위생기사 일본 연수 실시

협회 보건진단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산업위생 기사들의 전문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일본지역의 관계기관 견학을 1, 2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동 계획에 의해 제1차 연수는 오는 8. 27-9. 1(5박 6일)에 협회 남택승 부회장(순천향 의대 교수)을 단장으로 하여 협회 및 보건진단기관의 산업위생기사 13명의 연수단이 참가한다. 이 연수팀은 일본 경도공장 보건회와 오사카의 關西労働衛生技術센터, 滋賀 보건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견학케 된다.

2차 연수는 '92. 2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1차 연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 장: 남택승 (협회 부회장, 순천향의대 교수)

건학사 : 김정남 (협회 본부 산업위생과장)
최충곤 (협회 중앙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계장)
김재웅 (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과장)
김 황 (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계장)
박후근 (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계장)
신병진 (협회 마산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계장)

박대의 (부산 백병원 산업위생계장)
윤진용 (중앙길병원 산업위생계장)
이원호 (동강병원 산업위생계장)
황의옥 (근로복지공사 순천병원 산업위생계장)
정규범 (고신의료원 산업위생계장)
전하섭 (경희대 의대 산업위생계장)

휴 게 실

늦은 잠을 청하며

광주전남지부 김 종관

겁없이 차오르는 나이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는
낙엽같은 육신을 붙들고
내일을 그려 본다.

사람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생애인 것이지만
이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고달픔이다 못해 죄가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픔이 깊을수록 기다림은 멀고
좁처럼 봄이 오지 않는 현실
나와는 상관없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 사이에서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뿌러지게
대답할날 있으리라
가난했지만
후회스럽지 않노라고

사랑하기 위하여
중요하기 위하여
가슴깊이 간직했던
핏기서린 고달픔
보리꽃처럼 뽑어낼 날 있으리라.

아직도 새벽이 먼 하늘아래
감감하게 차오르는
나이를 건너차며
마구잡이로 늦은 잠을 청한다.